



서양악기와 세계 각국의 전통악기가 어우러진 '요요마&실크로드 앙상블' 공연 모습.

# 동서양 화합, 평화의 메시지 전세계에

## '요요마&실크로드 앙상블' 연주회 성황 호남예술제 출신 비올리스트 김유영 참여

지난 12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독특한 연주회가 열렸다. 바이올린·첼로 등 서양악기와 한국의 장고, 인도의 타블라, 이란의 카만체 등 세계 각국의 전통악기가 어우러진 연주는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전달했다.

이날 무대에 선 이들은 '요요마 & 실크로드 앙상블'이다. 이들은 '산은 멀고, 돌은 새긴 사람', '미도산 민요모음'으로 구성된 '실크로드 모음곡' '복 오보 엔젤스 중 모음곡' '타란타 프로젝트' 등을 들려줬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가 이끄는 '요요마 & 실크로드 앙상블'은 지난 1998년 '동서양 문화 잇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결성됐다.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무대에 서온 이들은 UN총회 총회장, 노벨상 시상식, 베이징 올림픽 개막 공연 등을 열었다.

실크로드 앙상블은 새로운 음악 개발과 음반 작업에도 열심이다. 지금까지 세계 작곡가와 편곡자들로

부터 70여개국 음악가들이 공연했으며 최근작인 앨범 '지도 밖으로(Off the map)'는 2011 그래미상 최우수 크로스 오버 클래식 앨범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또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한 '새로운 불가능한 일들', 일본 NHK 방송국이 제작한 실크로드 관련 다큐 음악으로도 사용된 '실크로드 여정-지평선을 넘어' 등도 좋은 평을 받았다.

앙상블 멤버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세계적인 타블라 연주자로서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던 산디프 다스와 케이하인 캄로, 중국인 최초로 백악관에서 연주한 우만(중국 전통 악기 피파 연주자), 4중주단 '브루클린 리더' 멤버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폴린 제이콥슨과 에릭 제이콥슨 형제 등을 비롯해 자기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연주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공연을 가진 20여명의 단원들 가운데는 한국인 연주자 두명이 끼어 있었다. 한명은 장구와 보컬을



요요마와 호남예술제 출신 비올리스트 김유영(왼쪽).

맡고 있는 작곡가 김동원(원광디지털대 교수)씨로 실크로드 앙상블의 음반 작업에도 참여했다.

또 한명은 합평 출신의 비올리스트 김유영(31)씨다. 호남예술제 출신인 김씨는 서울대 재학중이던 2000년 도미, 커티스 음악학교(학사)와 줄리어드 음대(석사)를 졸업하고 예일대 연주자 과정을 수료했다. 2004년과 2006년 Young Professional Artist로 카네기홀 차세대 음악인으로 초청된 김씨는 이후 나이지리아 앙상블, 뉴욕 리릭 앙상블 등과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씨가 요요마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03년 카네기홀 오디션에 참

가하면서부터. 오디션에 합격한 후 김씨는 요요마와 2주간 생활하며 카네기홀 등에서 8차례 연주회를 가졌고 이후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오프닝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현재는 연주 활동과 함께 이화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한편 요요마와 앙상블 단원들은 이날 공연에 앞서 예술의 전당 무궁화홀에서 '세종꿈나무호모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했다.

세종 꿈나무오케스트라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등 사회·문화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관현악단이다.

/김지을기자 mekim@kwangju.co.kr

## 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9명 선정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한 광주시립미술관의 양산동 창작스튜디오가 입주 작가를 선정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13일 국내 대표적인 '작가 양성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양산동 창작스튜디오의 입주 작가 9명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작가는 김명우(미디어·설치)·김형진(한국화)·박세희(사진·설치)·이성웅(조각·설치)·이재덕(조각)·이진희(서양화)·임현채(서양화)·허수영(서양화)·브라이언 헌터(회화·조각·설치) 등 9명이다.

시립미술관은 이들에게 1년 동안

작업실(46㎡)을 제공하는 한편, 전시회 개최를 비롯해 국내외 문화예술 탐방 행사나 레지던스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시립미술관의 창작 스튜디오는 지난 2004년 이후 젊은 작가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들이 잇따르는 등 인기가 높다. 올해에도 모두 53명이 지원,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립미술관 김민경 학예연구사는 "올해의 경우 5600만원의 운영 예산을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입주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에 따르면 국내외 창작스튜디오를 거쳐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는 123명에 이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수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늘에 대한 고마움 담아”



목포대 허형만 교수  
정년기념 시선집 '그늘' 펴내



“40년 가까운 활동을 하면서 고마운 게 많았습니다.”

허형만(67) 시인이 목포대 정년 퇴임을 기념하는 시선집 '그늘'을 내놓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늘'이라는 제목에도 40년간 지내온 일상 속의 평범함 속의 아름다움과 고마움이 녹아 있다.

그는 “살아오면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그늘이 많아서 그 속에서 쉬고, 작품 활동하고, 정년퇴임까지 할 수 있었다”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늘 속에 찾아가길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속 그늘에 대한 고마움을 담았다”고 말했다.

허 시인은 ‘사람은 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라는 인생철학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창작활동 또한 게을리한 법이 없는 부지런한 시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일상 속 풍경과 사물을 관조적으로 표현해 온 우리 시대의 대표적 중진 시인으로, 바쁜 일상의 틈바구니에서 흔히 마주치는 소재에서 시상을 찾아 맑고 고운 채로 걸려 자신만의 시어로 탄생시키는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시선집은 40년간 맑고 고운 서정으로,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담아낸 그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선집에는 그동안 출간한 '그늘이라는 말', '영혼의 눈', '비 잠시 그친 뒤', '입맞추기', '풀잎이 하나 나에게' 등 13권의 시집 속에서 시인이 가려 뽑은 주옥같은 작품 100편이 한지에 남 활자로 또박또박 박혀 있다.

100편을 골라내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고 한다.

그는 “내가 평소 좋아했던 작품과 평론가나 독자들이 좋게 평가하거나 애송하고 있는 작품들을 골라냈는데 무척 어렵더라”고 했다.

그는 “그늘이라는 말”, '영혼의 눈', '겨울 들뜬을 거닐며' 등을 꼽았다.

납할자 인쇄방식도 특별하다. 한지(韓紙)에 납 활자로 한자 한자 조판한, 요즘 보기 힘든 '옛 방식'인 활판인쇄로 만든 기품있는 '명품 시집'이다.

납활자인쇄만을 전문으로 하는 활판공방(活版工房)에서 만든 것으로, 김남조·이근배 등 25명의 내로라하는 시인들 작품만 선별해 제작됐을 정도다. 조판에서 인쇄, 접지, 제책 등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진 책은 1000부 한정본으로 나왔다. 만드는데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그동안 몸담았던 교단을 떠나는 탓에 담담한 목소리에는 회한도 묻어났다.

그는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더욱 작품 활동에 매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 시인은 오는 16일 순천에서 후배 문인, 제자들과 함께 시집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허 시인은 순천 출신으로, 중앙대 국문학과를 나와 1973년 월간 '문학'으로 등단해 '청명', '풀잎이 하나 나에게', '비 잠시 그친 뒤', '첫 차' 등의 시집을 펴냈으며 영랑시문학상과 심연수문학상, 월간문학동리상, 전남도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시립미술관 '인문학으로 문화 읽기' 강좌

### '현대미술과 인문학' 세번째... 조송식 교수 20일 첫 강의

광주시립미술관이 '인문학으로 문화 읽기'라는 주제로 상록 문화강좌를 연다. 지난 2010년 '현대미술과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뒤 올해로 세번째인 상록 문화 강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하는데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강의로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왔다.

올해 강좌에서도 조송식 조선대 미술교수가 20일 '동양화의 맛과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박찬성 삼국미술관 학예연구실

장(4월 24일·현대미술 어렵거나 쉽거나), 최영미 시인(5월 22일·시와 미술)을 비롯해 윤범모 미술평론가(6월 26일·한국의 미는 과연 있는가), 한창호 영화평론가(영화는 미술을 어떻게 이용하는가·7월 24일), 박만우 백남준아트센터 관장(백남준의 삶과 예술·8월 21일), 임철우 소설가(삶과

기억, 그리고 소설·12월 11일) 등이 강연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7132.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떡국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샤워)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